망상을 끊으라는게 아니라 놓아서 돌리라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흥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 줄 겁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상을 갖지 말라. 왜? 열 가지 빛 중에 하나를 내가 내세워서 이게 빛이라고 내놓을 게 없는 도리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늙어서 호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편을 만날 땐 부인으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애들을 만났을 땐 어머니로서 생각날 것이고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땐 친구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행하는 것이 전부 고정되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찰나찰나에 한 가지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는 거를 일일이 내가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부처님들은 바로 '무'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거를 내세워서 부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거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컴퓨터에서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넣는다면 무턱대고 자기는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 모든 걸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행적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 뒤바뀐 거죠? 주인이 만들어 놓고 거꾸로 하인한테 먹혀서 도리어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리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내 몸을 지킬 수 있죠. 그걸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몸이 법당이라고 한 뜻은 무어냐?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대표로서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임을 맡은 그 생명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안다면, 자기가 마음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컴퓨터나 영사기나 그런 데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미사일에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거스르지 않고 아래로 거스르지 않는 반면에 즉석에서 자기 육신이 바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언어가 두 마디 세 마디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체가 없는 자기의 광대무변한 참자기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화해서 물에 가면 물 부처가 돼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되면 바람 부처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돼 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지장보살이 돼 줄 것이고, 법에 송사가 붙었으면 판사가 돼 줄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경찰에 연관이 돼 있으면 경찰이 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참, 광대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오히려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폭에 지나지 않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빌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이름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름이 불교가 아니고 이름이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 따라서 바로 짝짝 갈라 가지고서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인과를 받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한데 떨어진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든지 올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란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고 부처를 따르랬지 누가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오는 대로 저 부처님과 마음으로써 둥글려서 한데 합쳐서 안에 딱 놓고서 삼배를 올린다면 그냥 천배 올린 것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부처님께 '나를 구원을 해 주시오.' 하고 삼천배 절을 해도 아마 한생각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 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균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서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책을 읽어서 강의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뭐.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을까요? 그건 숫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팔만', 팔이면 벌써 그대로 사무 사유가 돌아가는 뜻입니다. '사천'이면 벌써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 하면 벌써 하나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경' 했거든. 팔십종호도 말씀하셨지만 '호'도 '종'이라고 했으니 '종'도 '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자기 내공에 놓고, 의정을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오늘은 큰스님네들이 오시니 오만 평에다가 씨를 뿌려서 저녁에 요리를 해서 그 큰스님네들한테 맛있게 대접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오만 평에다가 오늘 씨를 뿌려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낼 수 있을는지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마디 더 부탁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소에 가서 똥을 눴는데 똥 눈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입니다. 일체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앞발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은 떼어 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단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금을 수만 관을 갖다가 쌓아 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 관리인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대로 물건을 사 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절에 와서 단돈 만원을 갖다 냈다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것만 보였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부처님께서는 선 인과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악의 인과도 그렇지마는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마 대사와 양 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량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족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4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종 합 향 : 100.000원 선향 大 : 70.000원
불 향 : 80.000원 선향 小 : 30.000원
가루향(도향) : 70.000원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